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표지 탐색하기

<거꾸로 가족>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거꾸로 가족'을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자가 힘이 좀 세면 어때? 아빠가 청소하고 요리 좀 하면 안 돼?

남녀를 떠나 누구에게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해요.

옛날에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남자는 약하면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목소리가 작아서도 안 됐어요. 반대로 여자는 힘이 세서도 안 되고, 목소리가 커서도 안 되고, 요리를 못해도 안 됐어요.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에도 이러한 편견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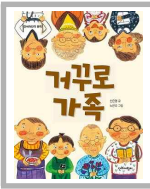
남녀로 구별 짓지 않고, 편견 대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① 옛날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편견이 있었나요?

⇒

②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거꾸로 가족>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욱, 난 내 동생 바롱이가 부끄러워요. 여자면서 행동은 영락없는 남자니까요.

- 강철민이 조금 전 귓속말을 할 때완 단판으로 내게 비아냥댔어요.
- 강철민의 어깨에도 닿지 않는 바롱이가 고개를 한껏 들고는 눈을 부라렸죠.
- 얼굴이 벌개진 삼촌도 숨넘어갈 듯 웃어 재겼죠.
- 화창한 하늘에 만국기가 나부겼고, 난 몸이 새털처럼 가벼웠죠.

(나) • 강철민은 뭐든지 1등을 해야 ㉠ 녀석이에요.

• 남자든 여자든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울어야 ㉡ 는 걸 강철민 아빠는 모르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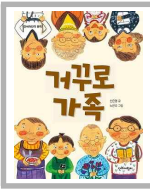
• 난 후끈후끈하는 손바닥에 집중하지 않으려 ㉢ .

1) (가)의 밑줄 친 낱말(기본형)의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 ① 얄밋게 빈정거리며 자꾸 놀리다.
- ②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다.
- ③ 눈을 크게 뜨고 눈망울을 사납게 굴리다.
- ④ 일을 숨씨 있게 쉽게 처리하거나 빨리 해 버림을 나타내는 말.
- ⑤ 천, 종이, 머리카락 따위의 가벼운 물체가 바람을 받아서 가볍게 흔들리다. 또는 그렇게 하다.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에 들어갈 표현을 쓰세요.

- ㉠ : 제 성미대로 되어 마음이 흡족하다.
- ㉡ :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없어져서 마음이 상쾌하다.
- ㉢ : 불만이나 고통 따위를 참으려고 매우 노력하다.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거꾸로 가족>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바롱이는 보나마나 어제 입었던 운동복을 또 입겠다고 아빠랑 () 중일 거예요.

- “남자답다 혹은 여자답다는 건 그저 ()이 아닐까?”
-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으니 ()로 해 보면 어떻겠니?”
- 내가 손을 흔들자, 우리 가족 모두가 내게 ()으로 손을 흔들어 줬어요.
- ()에 불이라도 붙은 건지 강철민이 반대 방향으로 뺑, 달려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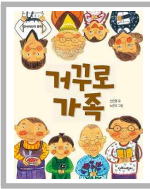
(나) 엄마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항상 고모를 부르죠. 우리 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고모거든요. / “아휴, 언니. 이런 건 저 혼자 들면 되니까 쉬세요.” / 고모는 ㉠식은 죽 먹기란 듯 커다란 화분을 혼자 번쩍 들어 올렸어요. 부둥켜안고 엉엉 우는 나랑 삼촌 옆을 휩 지나가는 고모가 보였죠. 역시, 우리 고모는 ㉡천하장사예요.

1) (가)의 각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 ① 꿈지 : 새의 꿈무늬에 붙은 것.
- ② 열성적 : 열렬한 정성을 들이는 것.
- ③ 실랑이 : 서로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일.
- ④ 다수결 : 회의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
- ⑤ 고정관념 :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2) (나)의 밑줄 친 ㉠~㉡의 뜻을 다음에서 알맞게 찾아 짝을 지어 쓰세요.

- ㉠ 세상에 비길 데 없이 힘센 장사.
- ㉡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모양.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02. 또 울어요? / 03. 팔씨름 대회

<거꾸로 가족>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흠흠, 철민이 아버지 말씀은 옛날 생각이란다. 왜 남자는 자주 울면 안 되는 거지? 왜 남자는 늘 씩씩해야 하지? 남자답다 혹은 여자답다는 건 그저 고정관념이 아닐까? 우리 여자, 남자이기도 하지만, 다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 선생님처럼 감성이 풍부한 남자는 자주 운단다. 물론 남자보다 더 씩씩한 여자도 있지. 선생님은 남자답기 보다 나, ‘반대로’ 다운 사람이 되고 싶구나.”

우아,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나도 모르게 찢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 반대로 선생님의 반짝이는 머릿결이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바로 너, 울어?” / 짝꿍인 빛나가 물었어요. / “아…… 아…… 아니야!”

(나)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한쪽 눈만 실금 떠서 보니 강철민이 바닥에 고개를 박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여자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구름구름 발을 구르고 있더라고요. 똑똑이 빛나가 강철민 코를 납작하게 만든 한판이었죠. 비록 6대 6 무승부가 되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강철민 말이 틀려서 난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남자라고 다 힘이 세고, 여자라고 다 힘이 약할 리가 없잖아요.

1) (가)에서 ‘반대로 선생님’이 한 말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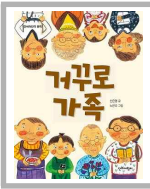
왜 남자는 □□ □□ 안 되는 것이고,
왜 남자는 늘 씩씩해야 하는 것이며,
□□□□ 혹은 여자답다는 것은 그저
□□□□일 수 있음.



우리는 여자, 남자이기도 하지만, 다
□□ □□이고, 선생님처럼 □□이 풍
부한 남자는 자주 울 수도 있고, 남자
보다 더 □□□□도 있음.

2) (나)에서 ‘나’(바로)가 기분이 좋았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

⇒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04. 삼촌, 똑! / 05. 우리 고모가 최고

<거꾸로 가족>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우리 삼촌이 나랑 바롱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시간이죠. 오늘 이야기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난 초롱이가 엄마를 다시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소매로 닦아 냈죠.

우리 삼촌은 코를 훌쩍이며 책을 가슴에 껴안고 있더라고요.

“삼촌 괜찮아?” 말 없는 삼촌이 걱정되었는지 바롱이가 물었어요.

(나) “팔씨름에서 남자, 여자가 똑같이 6대 6이었으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연이가 말했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무승부였으니 힘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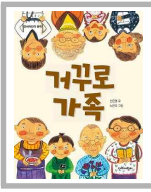
“전 남자가 당연히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이 훨씬 많다고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강철민이 알뜰하게 말했어요.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난번 팔씨름 대결은 무승부였지만, 마지막에 제가 강철민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자 팀이 이긴 거니까 여자가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빛나는 어쩔 저리 야무지게 말을 잘 할까요?

1) (가)에서 ‘나’(바로)가 눈물을 흘리고, ‘삼촌’이 코를 훌쩍였던 이유를 쓰세요.

⇒

2) (나)에는 줄다리기를 할 때 여자와 남자 중에서 어느 쪽이 앞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06. 거꾸로 가족

<거꾸로 가족>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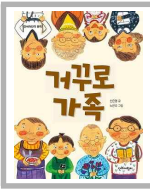
(가) 한가로운 주말 아침, 아빠가 일찍 일어나 캐릭터 도시락을 썼어요. 할아버지, 아빠, 삼촌, 나는 식물원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 엄마, 고모, 바롱이는 야구장에 간다고 했죠. 사람들은 우리 집을 '거꾸로 가족'이라고 불러요. 남자와 여자가 거꾸로라고 말이죠. 여자들은 직장에 다니고, 남자들은 집에 있는 가족, 여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꽃을 좋아하는 가족, 여자들은 목소리가 크고, 남자들은 조용한 가족……. 이 외에도 거꾸로인 게 참 많아요. 하지만 난 이런 거꾸로 가족이 참 좋아요.

(나) 그런데 다음 순간, 강철민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철퍼덕, 꽤 아플 것 같았죠. 한편으론 좀 고소했어요. 알미운 녀석이니깐요. / 강철민 아빠가 앞서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넘어진 강철민을 일으켜 세우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강철민은 진짜 아픈지 눈물이 와락 터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강철민 아빠가 화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 “사내 녀석이 울긴 왜 울어! 아빠가 늘 말했지.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우는 거라고. 지금이 울 때야?”

1) (가)에서 ‘나’(바로)의 가족을 사람들이 ‘거꾸로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쓰세요.

⇒

2) (나)에서 ‘강철민 아빠’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강철민’에게 사내 녀석은 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07. 시범 경기 / 09. 힘센 순서대로

<거꾸로 가족>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강철민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난 봤어요. 강철민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한 걸요. 애써 참으려고 입술을 깨문 것도 보였죠.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울어도 되는데…… 억울하면 누구나 눈물이 나오는 건데…….' 나는 강철민의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여 줄까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나) 그런데도 남자들은 여자 탓, 여자들은 남자 탓을 계속 했어요. 난 속이 답답했어요. 왜 항상 여자, 남자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걸까요? 줄다리기는 힘이 센 아이들이 앞에 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기…… 이걸 어때? 지난번 팔씨름으로 누가 힘이 센지를 알고 있으니깐, 힘이 센 순서대로 앞에 서는 거지.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눅듯이 몸을 뒤로 젖히고 영차영차 구령에 맞춰 줄을 당기면 되잖아.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줄 잡고 구령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야."

내가 숨을 안 쉬고 말을 주르륵 쏟아 내자 다들 멍하니 듣고만 있더라고요.

1) (가)에서 '눈물'에 대한 '강철민'의 행동과 '나'(바로)의 생각을 각각 쓰세요.

⇒

2) (나)에 나타난 '나'(바로)의 생각과 말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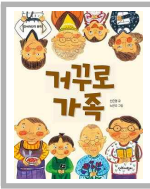
□□□은 여자 탓, □□□
□□은 남자 탓을 해서 □□
□□했고, 왜 항상 여자,
남자로 □□해서 생각하
는 것인지 의아했음.



지난번 □□□으로 누가
□□이 센지를 알고 있으
니까, 줄다리기는 □□□
□□ 순서대로 □□에 서자
고 제안했음.



시작하자마자 □□을 뒤로
젖히고 □□□에 맞춰 줄
을 당기고, 남은 □□□□
에 줄 잡고 구령을 맞추
는 □□□을 하자고 했음.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11. 결승전 / 12. 이번엔 아냐!

<거꾸로 가족>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뽀이익! 2반이 와르륵 뒤로 넘어졌어요. 우아! 우리가 승리했어요. 우리는 만세를, 2반은 툭툭, 땅을 차 댔죠. 내 눈에서 와락 눈물이 쏟아졌어요. 조희대 옆에서 우리 할아버지, 아빠, 삼촌도 꺼억 꺼억 소리를 내며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 곁에 선 담임 선생님도 어어어어영 울고, 무엇보다 강철민이 가장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강철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깨가 연신 들썩였고, 토닥이는 내 손도 덩달아 오르락내리락했죠. 식물원에서 본 뒷모습과 꼭 닮은 울음 같았어요.

삼킬 수 없는 울음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 반은 기쁘고 행복해서 눈물바다를 만들었죠.

(나) “나 아까 운 거 말야. 바보 같지 않았냐? 남자가 부끄럽게 말야.”

강철민이 탄성을 피우듯 툭 내뿔었어요. / “바보 같긴,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야지. 우는 데 여자 남자가 무슨 상관이야? 난 진짜 자주 우는걸? 우리 삼촌이 읽어주는 동화가 감동적이어서 울고,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고생한 이야기 듣다가 울고, 가끔은 고모랑 장난치다가 고모 주먹이 너무 아파서 울어. 하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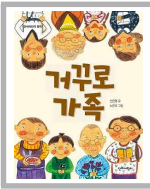
1)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 : □□□□ 시합에서 ‘나’의 반이 □□□□하자 □□를 불렀고, 기쁘고 행복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 담임 선생님 모두가 울었고, □□□□이 가장 서럽게 울었음.

(나) : 강철민이 아까 울었던 것이 □□□□ 같고 부끄럽다고 말하자 ‘나’는 □□□□□□ 마음껏 울어야 한다면 우는 데 □□□□□□가 무슨 □□□□이냐고 말했음.

2) (나)에서 ‘나’(바로)가 울었던 세 가지 상황 중에서 나머지와 그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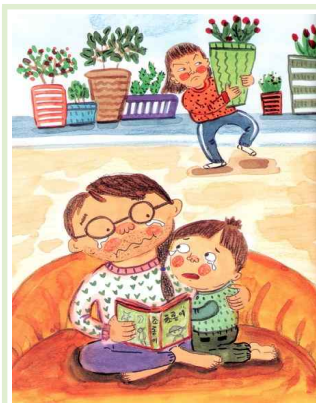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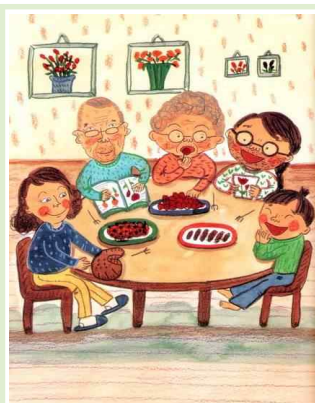


독해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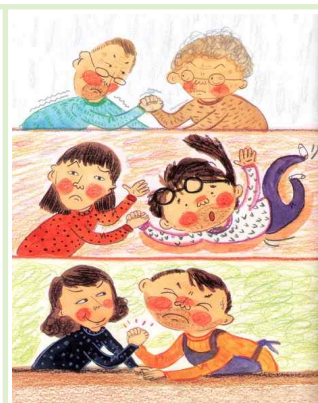
1) 다음은 <거꾸로 가족>의 본문에 나온 그림들입니다. 각 그림을 보고, 남자와 여자가 ‘거꾸로’인 점을 쓰세요.



①



②



③

2) 아래 표에 자신의 가족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쓰고,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거꾸로’인 것을 써 보세요.

▪ 남자 :

▪ 하는 것 :

▪ 거꾸로인 것 :

▪ 여자 :

▪ 하는 것 :

▪ 거꾸로인 것 :



거꾸로 가족 (초등 3단계)

단비어린이 | 신은영 글 / 노은주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1쪽	(예시답안) 1) 가족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하니 무엇이 거꾸로 된 것인지 궁금했다. 2) 제목 아래에 과일이 담긴 그릇을 든 아빠, 꽃을 든 남자아이와 할아버지, 책을 든 삼촌이 웃고 있다. 제목 위에 거꾸로 서류 봉투를 든 엄마, 여자아이와 할머니, 도복을 입은 고모가 웃고 있다. 3) ① 남자는 약하거나 울어서도 안 되고 목소리가 작아서도 안 됐었고, 반대로 여자는 힘이 세거나 목소리가 커서도 안 되고, 요리를 못해도 안 됐다. ② 남녀로 구별 짓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2쪽	1) ②, ①, ③, ④, ⑤ 2) ㉠ : 직성이 풀리는, ㉡ : 속이 시원하다, ㉢ : 안간힘을 썼어요
3쪽	1) ③, ⑤, ④, ②, ① 2) ㉠-㉡, ㉡-㉢
4쪽	1) 자주 울면, 남자답다, 고정관념 / 같은 사람, 감성, 씩씩한 여자 2) 남자라고 다 힘이 세고, 여자라고 다 힘이 약하다는 강철민의 말이 틀려서
5쪽	1) 삼촌이 읽어준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어서 2) (예시답안) 줄다리기의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하든, 남자 혹은 여자가 앞에 서든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줄다리기는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단결하고 협동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어떻게 단결하고 협동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6쪽	1)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과 좋아하는 것, 성격 등이 거꾸로라서 2) (예시답안) 강철민 아빠가 넘어져서 아파하는 강철민에게 사내 녀석이 왜 우냐며,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우는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파서 우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고, 우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기 때문이다.
7쪽	1) 강철민은 눈물을 애써 참고 있고, ‘나’는 억울하면 누구나 눈물이 나온다고 생각함 2) 남자들, 여자들, 답답, 구분 / 팔씨름, 힘, 힘이 센, 앞 / 몸, 구렁, 일주일, 연습
8쪽	1) (가) : 줄다리기, 승리, 만세, 강철민 / (나) : 바보, 울고 싶으면, 여자 남자, 상관 2) 고모랑 장난치다가 고모 주먹이 너무 아파서 우는 것.
9쪽	1) ① 고모가 커다란 화분을 혼자 번쩍 들어 올려 옮기고 있는 것, ② 할아버지와 삼촌은 꽃 그림을 보고 있고, 엄마는 왼손에 야구 글러브를 끼고 있는 것, ③ 팔씨름하는데, 할아버지와 아빠는 힘들어하는데 할머니와 엄마는 멀쩡하고, 고모가 삼촌을 바닥에 널브러지게 한 것. 2) 생략